



# 나쁜 리더십의 특징

누구나 훌륭한 리더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조직을 이끌고 싶지만 자신의 기질이나 성향, 그리고 조직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긍정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최고의 문제 해결가와 최악의 문제 해결가는 곧 좋은 리더이나, 나쁜 리더이나의 차이일 수 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의 방향이 원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해결 과정과 결과가 조직원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의 곁에 좋지 않은 지도자의 특징의 빛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나쁜 리더십의 빛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을 알아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법, 나쁜 리더십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 공감이 결여되어 있다 - 공감 결여는 나쁜 리더의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안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
- ▶ 변화를 두려워한다 -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많은 자금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리더는 뒤로 처질 수밖에 없다.
- ▶ 너무 쉽게 타협한다 -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내는 능력은 리더에게 꼭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나 이상을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 흔히 권위적인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는 데, 실제로는 그 반대다. 권위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다.

- ▶ 유유부단하다 - 리더는 결단을 해야 한다. 고객을 다루는 일에서부터 점심식사 장소를 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에 이렇듯 저렇듯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십 위상이 확립되지 않는다.
- ▶ 사람 보는 눈이 없다 - 변명을 일삼는 친구나 동료를 알아보는 데 맹점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진짜 특성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도와줄 사람을 주위에 두기 어렵다.

- ▶ 균형 감각이 없다 - 매일같이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승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 ▶ 겸손하지 못하다 -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하의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

###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더의 결정은 그 기업의 사활을 좌우한다. 리더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결정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결정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에 내린 결정이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늘 의사결정을 잘못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문제는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다. 체면이 깎이더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즉각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을 영어와 일어로 전도합시다

승리자께서는 어떻게 성적인 욕망을 극복하셨나요?

How the Victor overcame the sexual desire?

勝利者はどのように性的な欲を克服されましたか?

성욕이 일어날 때에 승리자께서는 산을 뛰어 올라가고 내려오셨습니다.

When sexual desire arose, the Victor dashed up and down a mountain.

性欲が起きる時勝利者は山を走り上がって降りてきました。

또한 승리자께서는 거의 죽을 정도로 호흡을 정지하셨습니다.

Or, the Victor stopped breathing nearly to death.

または、勝利者はほとんど死ぬほど呼吸を止めました。

그리고 승리자께서는 자신을 마귀라고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And the Victor scolded and reproached himself as Satan.

そして勝利者は自分を魔鬼だと叱ってとがめました。

승리자처럼 우리도 성욕을 극복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Like the Victor, we can live forever when we defeat the sexual desire.

勝利者のように私たちは性欲を克服してこそ永生を得ることになります。

### 속담 속의 영생학

## 빈 수레가 요란하다

우리 인류는 6천년 이래 쉼 없이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꿈꾸며 남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삶의 수단이자 도구로 여기며 살고 있다.

하지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경 불경 모든 경전을 수많은 사람이 배우며 따르고 있지만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빈 수레가 요란한 격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 구절처럼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사람의 진정한 실체(하나님과 마귀의 병존체)도 모르고 진정한 강자(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기는 존재)도 알지 못한다. 이 모든 진리를 알려주는 승리제단 이긴자의 말씀은 외면한 채 영동한 곳에서 해매는 중생들... 엄청난 신도, 엄청난 재력, 엄청난 세력들이 형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 세를 뽐내며 살고 있지만 100년도 못살고 결국 다 죽어 왔다.

진짜 신화는 모든 채, 사람의 근본 뿌리

리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서 비진리를 공부하다 지옥(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였다. 한국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론과 귀한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계신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를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데 현혹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요란하니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신다. 사력을 다하여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 영생이 이루어져야 참 종교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참 말씀과 비결은 온 우주 가운데 한국하고도 부천시 소사구 역곡 승리제단에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빈 수레에서 내려와 진짜 구원의 방주를 타야 한다.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참 구원의 비결, 진정한 구원의 증표가 되는 이슬성신인 마패를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삼신산의 불로초, 승리제단에 하루 빨리 동참하시라. 호박이 넘볼째 굴러들어오는 대북! 사람이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원시 반본의 북! 진짜수레를 지금 당장 끌어라!\*

참고은 기자

### 우리말 바꾸기

## 헛갈리는 우리말 모음③

다음 예문 중에서 정답을 맞춰보자. 과연 몇 개 맞을까?

- “남성의 상징으로 불리는 (구레나룻/ 구맷나루)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정답은 ‘구레나룻’이다. 표준어는 구레나룻인데 무의식적으로 구맷나루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 “어머니가 아버지를 (탁달했다/ 뒹달했다)” 정답은 ‘뒹달했다’이다.
- “오빠는 정말 (단출하게/ 단출하게) 웃을 입는다” 정답은 ‘단출하게’이다. ‘일이나 차림차림이 간편하다’의 의미로 많이 쓰는 단어로서 ‘단출하다’라고 잘못된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단출하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 “비가 (개다/ 개이다)” 정답은 ‘개다’이다. “흐리거나 꽃은 날씨가 맑아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개다’이다. 따라서 ‘비가 개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며 ‘비가 갠’
- “우리에게는 (실날/ 실날)같은 희망이 남아 있다” 정답은 ‘실날’이다. 여기서 ‘실날’은 ‘실의 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 “인터넷에 있는 글을 (짜집기/ 짜집기)해서 썼겠지, 흥!” 정답은 ‘짜집기’이다. 단어를 뜯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짜다’는 ‘실이나 끈을 엮어서 천을 만들다’라는 뜻이고 ‘집다’는 ‘떨어지거나 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그대로 꿰매다’라는 뜻이며 ‘집다’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물건을 잡아서 들다’라는 뜻이므로 ‘짜다’와 ‘집다’가 결합된 ‘짜집기’가 올바른 우리말이다. 사실 ‘짜집기’는 없는 단어이다. 잘못된 표현인 ‘짜집기’가 쓰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헛갈려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표준말인 ‘짜집기’를 잘 쓰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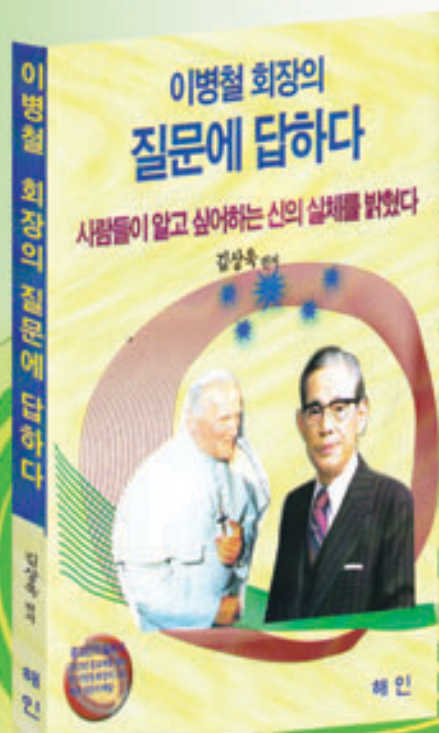
이승우 기자

##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묵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해안으로 풀이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정이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종말 인류의 미래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자와 천국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長生 건강한 삶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시중 서점 협찬 판매중

도서출판 해·인